

 POSRI 보고서

글로벌 항만 개발, 新 성장동력 부상

허광숙 수석연구위원, 패밀리경영연구센터 (kshuh@posri.re.kr)

[목 차]

1. 세계 항만부족 현상 심화
2. 신흥국, 경쟁적 항만개발 계획 발표
3. 해외 항만개발 선점을 위한 경쟁도 가열
4. 해외 항만개발, 신중하게 접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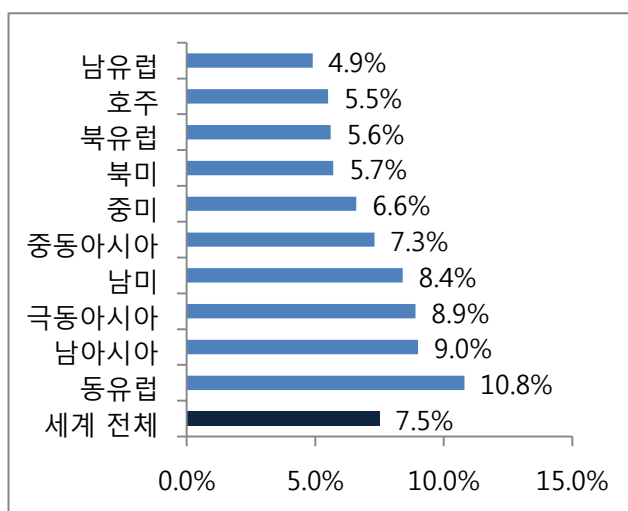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 글로벌 무역확대에 따라 항만수요가 크게 늘면서 신흥국 중심으로 항만 초과수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
 -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증가율이 세계 GDP 성장률의 3~4배로 확대되면서 '30년까지 세계 항만 운송 수요는 현재의 4배 예상(OECD)
 - 세계적 항만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5년까지 연 평균 330억 달러, 그 이후 '30년까지 연 평균 400억 달러의 추가적 투자 필요(Drewry)
- 항만부족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은 대규모 항만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 새로운 사업기회로 부상
 - 물동량이 크게 늘고 있는 아시아,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부주도로 대대적인 항만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 중국과 일본은 해외 항만개발을 새로운 성장동력 및 수익원천으로 인식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수립
 - 중국은 풍부한 정부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자원개발과 연계된 해외항만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항만 배후지역의 산업·물류단지와 연계된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 일본은 ODA자금을 활용, 민간부문의 해외 항만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상사와 물류업체 역시 수익증대 차원에서 해외 항만건설과 운영에 투자를 확대
 - 한국 정부 역시 민관협력차원에서 해외 항만개발을 위해 관련업계에 금융 및 정보지원을 강화
- 해외 항만개발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신흥국 시장 리스크 요인도 높아
 -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부재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인프라 관련 PF 여력도 크게 위축되면서 관련 자금조달이 가장 큰 장벽으로 대두
 - 국내 B공사의 러시아 나훗카항 투자나 S건설의 베트남 반퐁항 건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지 파트너사를 포함한 투자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이 매우 중요
- 해외 항만개발은 기회도 있지만 리스크 요인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다양한 정부 및 국제기관의 차관이나 원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리스크 축소를 위한 투자지역의 심층적 사업타당성 조사와 현지화 전략이 중요
 - 기술과 인적자원 개발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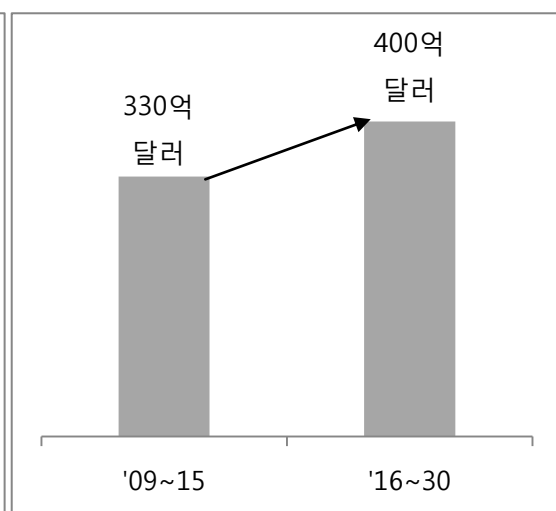
1. 세계 항만부족 현상 심화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FTA 확산 등 무역확대에 따른 물류 수요 급증으로 신흥국 중심으로 항만수요 부족이 심각
 - 해상 물동량은 신흥국의 고성장 및 산업화 진전으로 세계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는 성장세 시현
 - '90년대 이후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세계 GDP 성장률의 3~4배에 달하는 증가율 유지
 -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해상물동량(컨테이너 화물 기준)은 '16년까지 연평균 7.6% 성장이 전망되며, 특히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 신흥국 지역에서 두드러진 성장 예상(Global Insight)
 - OECD('12): '30년까지 세계 항만운송 수요는 현재의 4배까지 확대
 - 해상 물동량 급증으로 세계 주요 항만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미 초과수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보다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
 - 항만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5년까지 연 평균 330억 달러, 그 이후 '30년까지 연 평균 400억 달러의 항만 관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Drewry)
 - 향후 항만투자는 신흥국 중심의 대규모 신항만개발과 함께 기존 글로벌 허브항만을 중심으로 집화능력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산업과의 융·복합화나 첨단화 투자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1~'17 컨테이너 물동량 연 증가율>



<항만부분 연평균 필요 투자액 전망>



자료: Drewry, Annual Review of the Global Terminal Operators 2011

2. 신흥국, 경쟁적 항만개발 계획 발표

□ 해상물동량이 급증하는 아시아·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항만개발 계획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

- 항만부족을 겪고 있는 아시아, 남미 주요국들은 정부주도로 대대적인 항만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
 - 중국은 12.5규획에 따라 정부주도 개발이 진행되고, 중동은 GCC 7개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은 만성적인 항만부족을 겪고 있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신흥 개발과 기존 항만 확장사업이 추진될 전망

<주요 신흥국 항만개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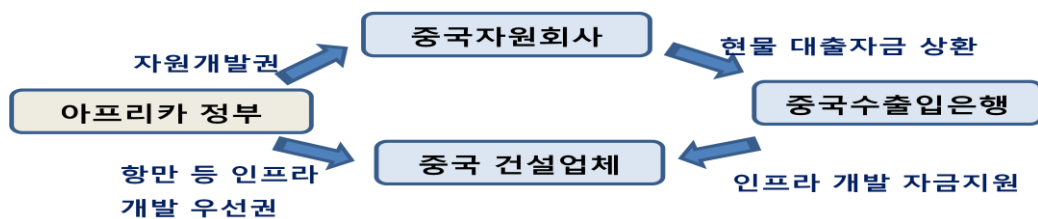
구분	국 가	항 만 개 발 사 업 내 용	투자규모(달러)	기 간
아시아	중 국	텐진항 확장 및 시설개선	170.6억	~'15년
		광저우/상하이 중심 강삼각주 항만 개발	-	-
		단둥지역 신흥개발	50억	~'17년
		우한시 항만개발	83.3억	~'15년
	중 동 (GCC 6개국)	아랍에미리트(칼리파 신흥)	150억 이상	~'18년
		두바이 (Jebel Ali항 확장)		
		사우디 (King Abdul Aziz항 확장)		
		카타르(New Doha 신흥)		
		오만 (Salalah 신흥)		
		쿠웨이트(Babian 신흥)		
	호주	석탄, 철강, LNG 등 자원 수송 전용항 개발	1,041억	~'17년
	인 도	12개 기존항만 확장 및 현대화 및 신흥 개발	민간: 370억 정부: 250억	~'20년
	인도네시아	북갈리바루 및 찰라마야 항만개발	-	-
중남미	브라질	산토스항 확장	45억	~'24년
		리오데자네이로만 확장	7.55억	-
		Porto Central항 확장 및 개선	22억	~'15년
		Aratu항 확장	3.6억	-
	온두라스	꼬르테스항 개발	2.5~3억	~'13년
		폰타드샤항 개발	-	-
	페루	카야오(Callao)항 확장	7.5억	-
아프리카	가나	테마항, 타코라디항 확장 및 신흥 개발	11억	~'20년
	에티오피아	Doraleh항 확장	3.3억	~'14년
	탄자니아	2개 신흥 개발	14억	
	모잠비크	마푸투항 확장	7.5억	
	케냐	Lamu항 개발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KOTRA 해외투자속보 등 종합

3. 해외 항만개발 선점을 위한 경쟁도 가열

- 해외 항만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개발은행(CDB)의 차관 및 국가간 협력펀드 등 자금력을 최대한 활용
- 중국의 해외항만 등 인프라 개발전략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잘 나타나듯이 정부 차관지원을 자원개발로 연계시키는 형태로 진행
 - 중국의 자원담보 차관으로 개발되는 자원을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항만·도로·철도 등 관련 인프라 건설과 관련 기자재 공급을 중국업체가 독점
 - 아프리카의 경우 '11년 건설시장 매출액 10대 회사 중 6개사가 중국업체로 시장점유율은 40%를 상회 (중국 ODA자금의 45%가 아프리카 인프라투자에 집중)

<중국의 對아프리카 차관/인프라/자원 연계 전략>



자료: World Bank(2008), Building Bridges: China's Growing Role as Infrastructure Financier for Africa

- 최근 아프리카나 아세안 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단지와 연계한 항만 및 물류기지 건설을 확대하면서 제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 10여 개의 특별경제구역(SEZ)을 건설하고 노동집약적 제조업 투자와 함께 항만, 도로 등 물류기지를 연계
 - 아시아 지역 역시 역내 물류서비스 시장 개방에 발맞추어 미얀마 등에 항만을 포함한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을 도모
 - 미얀마 차우크푸 신항을 중국 물류 전초기지로 개발: '09~'15년 25억 달러를 투자해 6천TEU 컨테이너 항만과 중국과 연계된 도로·철도 건설
- 일본은 ODA자금을 해외 항만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상사와 물류업체도 수익증대를 위해 해외 항만건설과 운영에 투자 확대
- ODA 자금의 25%가 인프라부문으로 이중 20%가 항만개발에 집중
 -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베트남 인프라 개발을 위해 민관 합작으로 5천억 엔 차관 제공을 결정

- 일본 종합상사들은 새로운 수익원 확보차원에서 신흥국 항만개발과 운영, 연관 물류 및 산업단지 개발에 경쟁적으로 대규모 투자
 - 아프리카의 경우 미쓰이 물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항만 확대와 시설 현대화 추진. 이를 통해 사용료 및 하역 서비스 등으로 운영 수익 추구
 - 가봉: 오웬도(Owendo)항 확장(20만TEU) 및 대형 크레인 설치
 - 알제리: 베자이아(Vgyet)항 확장(45만TEU) 및 연관 공업단지개발
 - 아시아 지역 역시 정부 차관 지원에 힘입어 종합상사 및 물류회사 등이 항만 관련 투자를 확대
 - 정부 ODA자금을 기반으로 종합상사(이토추)와 물류기업(NYK, 미쓰이 OSK)이 공동으로 '15년까지 하이퐁에 대규모 신행 건설 계획
 - 마루베니는 태국 항만 터미널(ESCO)을 직접 운영하고, 곡창지대인 브라질과 미국에서 곡물용 항만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에 출자
- 한국 역시 정부와 민간 모두 해외 항만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항만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ODA와 연계한 사업 추진과 함께 주요 국가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항만개발 협력을 강화
 - 아세안 항만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간 항만개발 양해각서를 체결('12. 3)하고 ODA 자금을 지원할 계획: 일차적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신행만 건설사업 지원
 - 민관합동 '해외항만건설협력단'을 구성하고, 중남미 주요국을 중심으로 협력사업 발굴 및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동시에 수시로 항만투자설명회를 열어 관련 정보를 기업과 공유
 - 민간부문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외 항만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최근 민간차원에서 '항만건설 CEO포럼'을 구성해 해외 항만개발을 위한 업계간 정보를 교환하고 對정부 지원정책을 건의
 - 현대건설은 최근 쿠웨이트 정부가 추진한 11.3억 달러의 쿠웨이트 부비안 항만공사를 수주: 25만 TEU급 4척 동시 접안 가능한 컨테이너 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14년 완공 예정)

4. 해외 항만개발, 신중하게 접근해야

- 해외 항만개발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신흥국 특성 상 정치·사회적 불안요소도 많아 리스크 요인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신흥국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시장이 침체하면서 해외 항만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음
 - 항만 건설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여부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 재원 및 차입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상황
 - 은행권의 자금 공급여력 부족으로 인프라 관련 PF 자금조달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 세계 PF자금 규모는 '11년 4,217억 달러에서 금년 1~4월에 불과 34억 달러로 크게 축소 (Dealogic)
- 투자국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리스크 상승 가능성

<B공사 해외항만 사례>

- '08년 러시아 나훗카항 컨테이너부두 개발 및 운영사업 투자: 국내 B공사, H해운 등 4개사 100억 원 규모 공동 투자(49% 지분)
- 현지 러시아 참여사 파산에 따른 사업 추진 포기 상황
- 원인분석: 치밀한 사전 준비 미비 (파트너사의 재무상태 취약, 동 지역 수심이 낮아 컨테이너 정박이 불가능한 상태 등 파악 미흡)

<S건설 베트남 반퐁항 건설 사례>

- '09년 베트남 최초 국제 환적항 건설계획(국내 S건설과 베트남 합작): 총 35억 달러 규모로 1.2만 TEU급 컨테이너선 전용 항만 건설
- '10년 8월 이후 건설 중단 상태 지속
- 원인분석: 베트남측 파트너사 자금 동원 능력 취약,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비용 과대 책정 등에 따른 합작사간의 이견 심화, 베트남 사업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실패

[참고 자료]

[언론자료]

매일경제, '필리핀, 캄보디아 항만건설시장 뚫는다', 2012. 3.22

부산일보, '해외항만 개발에 거액 날린 BPA 책임은?', 2011.7.29

아시아경제, '러시아, 인도네시아, 가나, 온두라스 항만개발사업 투자설명회 개최 ', 2012.5.29

일본경제신문, '미쓰이물산이 아프리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 2012.5.17

한국무역협회 ASEAN 물류포탈, '베트남, 수백만 달러가 낭비된 반홍국제항만 프로젝트', 2011.10.27

[학술자료]

김범중, 『해외 항만건설 전망과 진출전략, 항만건설 CEO포럼 발표자료』, 2011.

김형태 외, 『글로벌 항만투자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Drewry, Annual Review of the Global Terminal Operators 2011, 2012

Global Insight, Construction Outlook for world, HIS Global Insight, 2012

OECD, "Strategic Transport Infrastructure Needs to 2030: Main Findings",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 2011.

World Bank, "Africa Infrastructure Country Diagnostic", 2012.

World Bank, "Building Bridges: China's Growing Role as Infrastructure Financier for Africa", 2008.

[홈페이지 자료]

Lloyd 홈페이지 <www.lloydslist.com>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www.icak.or.kr/main.ph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Deallogic 홈페이지 <www.deallogic.com>